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진정한 공간디자인 정책을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매우 중요시 한다. 그 질을 높여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기와집과 초가집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근대화 바람을 타고서 변하기 시작했다.

골목길이 넓어지고 벽돌집 단계를 거쳐 지금은 온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집국을 획일화시켜 버렸다. 아주 단조롭게 말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시에 대한 공간디자인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조성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전국을 특정 없는 도시로 변모시켜버렸다. 거기에서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도 별로다.

특징이 없단 말이다. 그것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장이 바뀌질 때마다 바뀌 치기의 수난을 겪기도 한다. 자기 과시용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뀔 때마다 캐릭터가 변하고 도시공간도 변해버린다. 이런 상황들이 도시전체를 조화롭게 구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생각에 따라 조잡하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해물은 또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가. 때문에 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6·13지방 선거에서 신출된 지자체장들이 며칠 전에 일제히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을 디자인할 때 민간차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과의 직·간접토론편도 해야 한다.

그것도 단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캐릭터만 하더라도 미국 뉴욕은 'I♥NY', 일본 동경은 'YES! TOKYO' 등의 캐릭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또한 관광 상품화되어서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라. 현대화 속에서도 수백 년 또는 그 이전의 세계까지 현재화되어 공존되고 있는 것을, 과거의 조상들이 현재의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도시를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려 할 때는 적게는 십 수년, 많게는 수 십 년에서 수백 년

을 거쳐 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아름다운 도시들이 탄생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너무나도 획일화되어 있다. 지루할 정도로 단조롭다. 거리의 광고판들은 무질서함이 가히 도깨비굴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세계 불어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해외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없다.

현재 광주·전남의 도시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도청이 들어선 무안군 상황을 남아리는 상진백하다. 하지만 아름답지는 않다. 빌딩 숲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공간디자인정책은 아무리 강조한 다해도 결코 지나치지 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지역만이 함유할 수 있는 특장 있는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 하지 않는가. 한번 조성되면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도시환경이다. 형성된 후 바꾸려하면 보상 등 수많은 비용도 따른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함께 숙고하는 공간디자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社說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정부가 직장을 제 발로 떠난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대가 크다. 추가적인 재원 소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긴 하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은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직이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자로 보기 힘들므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는 사회적 진부 강화를 위해 이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1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 리대책보고대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대응 방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발적 퇴사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東	동	東	동
西	서	西	서
二	두	二	이
京	서울	京	경

▷ 뜻: 동과 서에 두 서울이 있으니, 동경(東京)은 낙양(洛陽)이고 서경(西京)은 장안(長安)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어린 시절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효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 원인으로 인해 노인 인권보호 인 프리가 미약하여 학대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을 틀대로 침대에 묶어 13시간 동안 방치하였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노인보호기관에서 비인권적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7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3,30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노인학 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안경찰서는 인권 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해 무안 인권경찰서를 자체치안시책으로 개발하고 인권향상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는 한편, 현장과출소를 노인 인권테마 파 출소로 시범운영하여 현장중심 노

인 인권보호 경찰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경과출소는 '어르신은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발착형 탄력순찰을 통해 치매 노인을 우선 돌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노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활동과 연계하여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나무의 '나이트'가 그러하듯이 사람의 주름살은 그가 살아온 세

월과 슬한 시련을 이겨 낸 훈장이기도 하다. 한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던가?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가 보이면 신고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특성상 은폐 가능성이 높아 깊은 관심을 갖고 신고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100세 인생 시대에서 고령화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관심도 제고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양현우 / 무안경찰서 현장파출소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